

마렉백신 행사 5년!

고 규 락

(축산기구사 대표)

1. 마렉백신에 관하여 문외한인 사람이 마렉백신에 대한 글을 쓴다는것은 주제넘는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 마렉백신과 더불어 5년간을 지내면서 잊을수 없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간추려 적어 보는것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가 마렉백신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마렉병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약업계에 종사하여서도 아니고 또한 양계업계에 오랜경험이 있어서도 아니다. 다만 월간지 "현대양계"에 근무하면서 편 집을 위하여 외국의 양계서적을 뒤적이고 세미나참석, 양계업계에 종사하시는 친지와 선배님과의 잦은 접촉에서 얻은 낮은양계지식으로 지난 71년 현대양계사로 부터 위립상사(동물약품 수입 및 판매업체)로 옮겼다. 당시만 해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던 마렉백신의 판매를 담당하게 되어 겁이 났었다.

그때는 마렉병이 백혈병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있어서 병원체의 규명 전염경로 예방및 치료에 관한 섬이 구구하였었다. 일단 마렉병에 걸린 계군은 최소한 30%~80%까지의 폐사나고 뿐만아니라 60일령이후에 폐사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질병보다도 커서 양계인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 마렉병은 백혈병의 일종으로 의문의 여지가 많았던 질병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계사질병(新鷄舍疾病) 이라고 할 정도로 환경이 깨끗하고 새로운 계사에서 사육하는 계군에서도 이 질병이 발생되어 이병으로 인한 손실이 컸던 것이다.

2. 마렉백신의 시험접종과 야외시험

마렉백신을 시판한것이 지난 71년초로 기억된

다. 물론 야외시험을 위한 접종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의 일이었지만! 이 마렉병의 실증(實證)을 위하여 동분서주 밤낮없이 바쁘게 뛰어 다닌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 박근식씨와 이 뒤바침을 위하여 적극 후원해 주신 당시 한마제약(주)사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당시만 해도 이 원인불명의 질병이 마렉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이 무서운 질병이 유입(流入)했으리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일렀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질병이 마렉병이 아닌가 하는 전제하에 마렉백신을 접종하여 야외시험을 한것이 의외의 성과를 거두어 실의에 찬 양계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해주었던것이다.

이 마렉백신 접종에 앞장서고 또 권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해 준 "S"종계장의 노고에 대해서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양계업계에 있어서 마렉백신이 선망의 대상이 된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는 마렉백신이라기 보다는 "덱타백"(DEPTA VAC)이라고 부르는 편이 훨씬 이해가 빨랐던 것이다. 물론 항간에서는 오늘날까지 "덱타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적지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 S. D(MERCK SHARP DOHME)사의 덱타백(DEPTA VAC)이 마렉병예방에 가장 앞섰기때문에 "덱타백"이 마렉타 백신의 대명사가 된것도 당연지사라고 생각된다.

3. 마렉백신의 시판

위와 같은 야외시험과정을 필하여 71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더우기 다른백신에 비하여 특이한것은

첫째, 백신의 보관방법이다. 다른 뉴켓슬 백신이나 계두백신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지 만 이“덱타백”은-196℃의 초저온 액체질소콘 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하며 접종직전에 용해하 여 주사하여야 된다는 것.

둘째, 부화된지 24시간이내의 초생추에 접 종하여야 한다는것.

셋째, 당시의 병아리값이 100~120원이었는 데 1수당 백신대금이 40원으로 너무나 고가 였 었다는것.

넷째, 어린 초생추에 연속주사기로 0.2ml 씩 일일히 피하 또는 근육주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당시의 실정으로써 병아리대금의 30%~40 %의 백신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 무 리한 것 같아 접종희망하는자의 병아리에 한하 여 접종하였다. 그러므로 백신접종량이 현재 와 같이 많지는 않았다. 그때는 백신접종 초 기가 되어서 인지 백신접종을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접 종을 았했어도 접종한 것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 있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 감을 갖기도 하였었다.

물론 당시만해도 전국적으로 오염이 았 되었 던 때문인지 이론이 분분하여 마렉백신의 판 매량이 급격히 늘지 았했다. 그러나 점차로 이 백신의 효과를 인정받게되어 대군업자는 전 량 접종하였으며 차차 각 부화장에서 생산되 는 채란계 병아리는 전량 접종하므로써 마렉 백신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던것이다.

4. 냉동 건조백신의 출현

1972년초부터 우리나라 에도 냉동건조마렉 백 신이 수입되어 “덱타백”이외의 새로운 마렉백 신이 등장하게 되었다

동결백신에비하여 보관, 운반등 취급이 간 편하다는 것이 특색이다. 즉 동결백신은 -19 5℃의 액체질소 콘테이너에 보관 운반하여야 되고 항상 2당 300원씩의 액체질소를 몇 일간격

으로 충전하여 항상 내부온도를 -60℃ ~196℃ 를 유지하여야 되기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 았던 것이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해 낸것이 바로 냉동건조 마렉백신이다. 이 냉동건조마 렉백신이 최초로 수입된것이 서독“타드”(TAD)사의 TAD백신이였다. 이 “타드”백신에 뒤 이어 영국“웰콤”사제품 불란서제 “케랍백” 화 란“인터벤”회사의“노빌리스”백신등이 수입되 었는데 이때만 해도 미주지역에서는 동결백신 이, 구주지역에서는 냉동건조백신이 대중을 이루었을 때이었다. 이와 같이 서로 았을 다 투어 마렉백신 판매개척에 열을 올리게 된것 은 그만큼 양계업체에서는 이 마렉백신이 인기 절정이었던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 는 위림상사의 마렉백신 판매담당자로 “TAD” 마렉백신을 취급하게 되었다.

어느 물품이고 초창기시장 확보를 위해서는광 고선전을 내놓을 수 았는것과같이 이 마렉백신 역시 그 예외가 아니였다.

5. 각 부화장을 순방하며 판매확장


위림상사는 서독 “타드”(TAD)사로 부터 수 입한 냉동건조 마렉백신을 가축위생연구소 에 점정의되하였다.

그때는 점정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 는 2개월이 좀 넘어 걸렸다. 의료계하면 독 일을 꼽을정도로 독일의 의약품과 의료기의 품 질은 널리 알려졌기때문에 우리 위림상사에서 수입, 의뢰한 마렉백신역시 무난히 합격되어 시판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점정결과 는 불합격이었다. 불합격된 순수시험을 거듭 하였으나 역시 이물질이 혼입되어 불합격의 쓰라림을 맛보지 았으면 았되지 되었다. 각부 화장에 공급예약까지 해 놓고 뜻밖의 사고로 공급을 포기한다는것은 첫 선을 보이는 상 품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았었던이다.

우리는 백신의 공급처인 서독“타드” 회사 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으나 상대측에서는 극구 부 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 었던것이다. 불합격 아되었다고 해서 경제 적으로 손해를 보는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첫 수입품이 불합격되어 판매개척에 오점을남

졌다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장문의 국제전보와 서신을 10여일간 거듭하여 1개월 후에 보상조로 다른 "롯드" (LOT)의 백신을 받아 재검정의뢰를 하였다. 두달간을 고대할 끝에 드디어 합격이 되어 72년도 중반부터 판매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 전조백신은 부피가 적어 손가방에 10만수의 백신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백신에 비하여 희석액이 너무나 부피가 커서 백신과 희석액을 함께 넣을 경우 2만수를 초과할 수가 없었다. 동결백신에 비하여 너무나 간편하였다. 동결백신에 2만수를 운반할 경우는 최소한 20kg 이상의 액체질소통과 희석액등 장비가 많아 전용차량이 아니면 철도, 또는 화물로 탁송하여야 하는데 이 전조백신은 중형 손가방 하나로 운반이 가

능하다는데 그 의의가 컸던 것이다. 서울 근교의 시장(부화장)은 이미 "DEPTA"백이 완전히 장악하여 침투하기가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이 모자라는 형편이라 서울근교에서는 판매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이 "TAD"백신의 특성인 보관, 수송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판매에 주력을 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개발된 희귀약품이고 보니 가격또한 고가로 중형 손가방에 70만원~80만원 상당의 약품을 휴대할수 있다는데에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백신중량(포장재로 포함)과 화폐(500원천) 중량과 비교하면 화폐쪽이 오히려 무거운 정도였으니까!



三正農苑 (70일雛)

**清淨環境에서 完璧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安全하게 輸送.**
 有名品種—하이섹스, 바브콕, 세이바
 育成方法—初生雛時 샷갓펄사 中雛時 케이지 사육
 防疫計劃—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發育度—品種別표준체중보증
 輸 送—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중 (70일추)

三正農苑

代表 李 晤 炯
 130-22 京畿道廣州郡五浦面陽棧1里261 성 약 원 55-3177

연락처: 양지기축약국 56-1938

※ 월간양계 구독안내

보다 알찬 내용과 질로서 구독회원을 모집합니다!

- ◎ 1년 구독료 5,000원
- ◎ 서울·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전화 22-3571, 3572, 6917 · 대체구좌 519272번